

자율안전관리의 밑바탕은 ‘소통’

(주)해성기공 천안공장 강석훈 기사

(주)해성기공은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철골 구조물만을 생산, 시공하는 강구조물(Steel Structure) 건물 건설업체다. 지난 1983년 창립된 이곳은 1997년 천안공장을 준공하면서부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가공설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 본격적으로 PIPE 구조물의 생산을 시작한 것이다.

이곳이 단순하게 강구조물을 제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주)해성기공은 인천문학경기장,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KINTEX 국제전시장 등 국내 주요 랜드마크의 기초구조물을 공급한 것은 물론 일본의 해끼난, 이소보 화력 발전소에 자재를 납품했을 만큼 대내외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곳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이가 오늘의 주인공인 강석훈 기사다. 강 기사는 이제 막 안전에 발을 내딛은 새내기라고 볼 수 있다.

갓 이립(而立, 30세)에 접어든 그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시작했다. 이는 곧 경력과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안전관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남다른 열정과 각고의 노력을 통해 빈틈없는 자율 안전관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지역 안전인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그가 어떻게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기에 이런 명성을 쌓고 있는지 만나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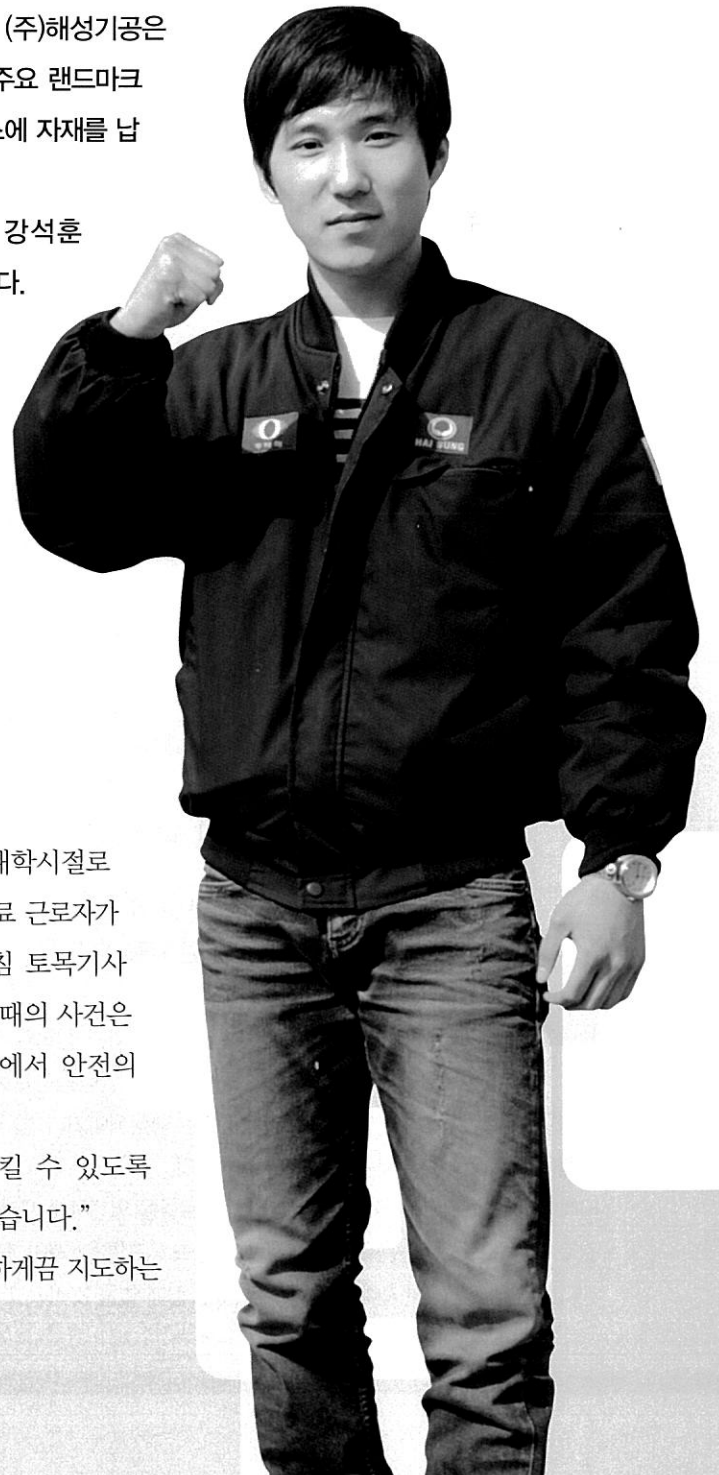
취재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

확고한 안전의식으로 무장

강 기사가 안전에 눈을 뜨게 된 계기가 있다. 그 이야기는 그의 대학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방학을 맞아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동료 근로자가 골절사고를 당하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게 된 것이다. 마침 토목기사와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던 그에게 그때의 사건은 뇌리에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산업현장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전파하기로 의지를 불태우게 된다.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 안전관리자의 길로 뛰어 들었습니다.”

그가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중간 중간에 사용하는 설비에 대해 점검하게끔 지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근로자에게 다가가는 안전관리 전개

“위험요소를 볼 수 있는 눈! 생산현장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귀! 모든 위험요소를 처리하기 위해 움직이는 부지런함! 이것이 안전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인으로서 누구보다도 확고한 직업의식을 갖고 있는 강석훈 기사. 하지만 처음부터 안전관리업무가 생각했던 것만큼 수월했던 것은 아니다. 강 기사가 안전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 지적을 하면 근로자들은 그가 젊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듯한 자세를 보였던 것이다. 또 안전교육이 진행될 때에도 근로자들은 방관자적인 태도로 일관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강 기사는 현장 근로자들과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매일 아침에는 스트레칭 강사로 대면했고, 근무시간에는 근로자들의 보호구를 직접 챙기면서 친근감을 표현했다. 여기에 더해 저녁에는 근로자들의 회식자리에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또 매일 2~3회씩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소를 발굴 개선해 나갔고, 한 달에 한 번씩 안전교육을 진행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도 고취시켜 나갔다.

이 같은 노력은 엄청난 결실을 맺었다. 근로자들이 안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강 기사를 먼저 찾아와 현장의 불안정한 상태를 제거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들에게 위험을 보는 눈이 생겼다는 점에서 안전관리자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다. 제가 처음 안전관리업무를 맡으면서 강조했던 것이기 때문이지요.”



안전 징검다리 역할 수행

강석훈 기사가 매진하고 있는 안전관리 중에 하나가 설비 점검이다. 그만큼 작업공정에서 설비사용으로 인한 재해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PIPE 구조물을 생산하기 위한 크레인 작업이 수시로 진행된다. 이에 강 기사는 크레인 작업이 이뤄지기 앞서 근로자들에게 작업 반경을 공지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특히 그는 크레인 작업이 진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와이어로프, 샤클, 클램프, 후크 해지장치 등을 수시로 점검, 교체하고 있기도 하다. 조그마한 결함만 발견되도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장비를 교체하고 있을 정도다. 또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안전화, 안전모의 품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급하고 있으며, 안전용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바로 새 것을 지급해 주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이와 같은 안전관리는 강 기사 혼자 의지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영진들이 높은 안전의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즉 강 기사는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는 동시에 경영진들의 안전 경영 실천의지를 현장에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실로 경영진과 근로자 사이에서 안전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안전관리는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아주 소중한 직무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보람된 마음도 갖게 된다는 강석훈 기사. 그가 앞으로 어떤 안전관리를 전개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진다. ☺